교훈	「장애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 소식지」	관인통신발행
정직 성실 노력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	2021-29호

시선을 바꾸면 다르게 보입니다.

무엇을 나타낸 그림일까요?
맞습니다. 장애인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달라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평소 주변에서 보던 장애인 상징과는 달라 보입니다.
이 그림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 부자연스럽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 표시는 1968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단순하게 표현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용 리프트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상징을 잘 살펴보면 어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팔과 다리는 로봇처럼 굳어있고, 손은 부자연스럽게 뻗어 있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휠체어를 밀고 움직일 수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디자이너 사라 헨드런과 브라이언 글렌니는 기존의 장애인 상징에 대해 '장애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선입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새로운 장애인 상징을 제안합니다.

 # 역동적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독립적인 사람

그들이 제안한 장애인 상징은 사람의 움직이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세상을 향해 스스로 움직이는 독립적인 한 사람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장애인 상징의 각 부분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1. 머리의 위치: 앞으로 숙어져 있는 머리는 선택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2. 팔의 각도: 뒤를 향해 있는 팔은 마치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3. 휠체어: 흰색 사선이 바퀴가 움직이는 것 같은 운동성을 느껴지게 합니다.

두 사람의 노력은 '엑세서블 아이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미국 전역으로 퍼졌고, 그 결과 2014년 처음으로 뉴욕주에서 장애인 상징을 변경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 시선을 바꾸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에 관한 오해와 편견

1.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

-아닙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입니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이 정상인이라는 것은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2. 장애는 전염된다?

-절대 아닙니다! 장애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장애가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3. '장애우'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아닙니다. 장애우라는 단어는 한자 벗 우(友)를 사용하여 장애인을 친근하게 부르고자 만든 용어입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에게 친구라는 의미를 담아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바른 표현이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로,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하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에 대해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정한 날입니다. 평소에 잘 모르던 장애인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에 대해서, 오늘 하루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봅시다. 그런다면 내일부터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장애에 대한 편견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장애인식개선 한 컷 웹툰

18년 만에 동생과 살기로 했어요. 발달장애인 장혜정씨 이야기

저희 자매는 18년 동안 떨어져 살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함께 사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동생과 같이 사는 일이 왜 도전이냐고요?

동생 혜정이는 경기도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살아온 중증 발달장애인입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의 의지보다 시설의 규칙이 절대적으로 우선됐죠. 시설을 벗어나 동생이 스스로 무언가 선택하고 자립하는 건 하나의 도전인 셈입니다. 더불어 저도 오래 떨어져 살았던 장혜정이라는 사람을 알아가고 맞춰나가는 도전을 매일 하죠.

혜정이는 어느덧 서른이 됐지만 여전히 '어른이 되면' 이라는 말을 해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할 때마다 주변사람으로부터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장애인이 어떻게 자립 하냐?"고 말하는데 사실 비장애인도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낼 수 없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자립이라는 기준이 비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것 보다 높죠.

'수많은 도전과 실패의 과정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것' 이야 말로 자립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은 불가피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자립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 시설에 격리했어요. 혹은 헬렌 켈러 같은 인물을 통해 장애인을 '특별한' 사람으로 그려 왔죠.

그렇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애인에게 좋은 삶과 비장애인에게 좋은 삶이 따로 있지 않죠. 그저 '인간'에게 좋은 삶이 있다는 걸 많은 사람이 알아줬으면 해요.**

그리고 **그런 삶을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영화<어른이 되면>의 주연
발달장애인 장혜정씨

※'생각 많은 둘째언니' 장혜영씨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나현 김유정 인턴기자

장애인식 개선 영화&도서 추천

나의 특별한 형제

신하균, 이광수/114분/한국/12세 관람가

머리 좀 쓰는 형 x 몸 좀 쓰는 동생!
세상엔 이런 형제도 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한 몸처럼 살아온 특별한 형제, 동구와 세하. 어느 날 형제의 보금자리인 '책임의 집'이 위기에 놓이고 두 사람은 헤어질 위기에 처하고 만다.

동구를 수영대회에 출전시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책임의 집'을 지키려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인물이 형제 앞에 등장하면서 형제는 새로운 위기를 겪게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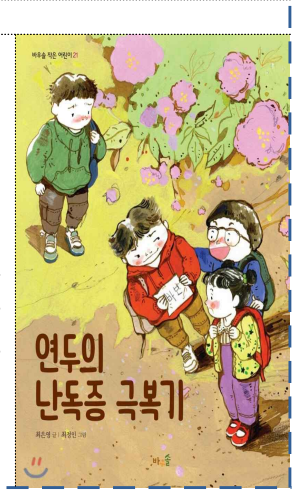
연두의 난독증 극복기

최은영 글, 최정인 그림/바우솔/2020년/

친구를 얻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하나 얻는 것과 같아요!

만화 캐릭터를 잘 그리는 연두는 민규의 짝꿍입니다. 연두는 말할 때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데, 책을 읽기 시작하면 제대로 못 읽고 엉터리로 읽습니다. 친구들이 그런 연두를 자꾸만 놀려 민규는 걱정입니다. 연두를 위해 민규는 작은 용기를 냅니다.

민규는 연두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다고 영상을 못 찍는 것도, 소리가 없다고 내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특별한 유튜버들을 소개합니다!

'달콤살벌'농인부부'
청각장애인 부부의 솔직담백한 일상 이야기를 담은 채널. 장애인 부부도 다른 부부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개설했다고 한다.

'원샷한솔'
고등학생 때 희귀 질환으로 시력을 잃은 김한솔씨의 채널. 시각장애인이 지하철 타는 법,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법 등 시각장애인의 일상 이야기를 담아 인기를 끌고 있다.

'굴러라 구르님'
'뇌성마비 고등학생도 똑같다.. 공부 안 하는 건...' 뇌성마비 고등학생의 일상 이야기를 담아 인기를 끈 채널. 휠체어로 제주도 여행하기, 휠체어 타고 롯데월드 가기, 휠체어 꾸미기 등 독특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2021년 4월 19일

관 인 초 등 학 교 장